

사회

대학생 '알바'도 3D 인력난

병원코디·학원·사무직 몰리고

치킨배달·편의점·주차장 기피

#1. 최근 광주시 서구 한 안과의 방학기간(7~8월) 아르바이트생 모집에 무려 90여명의 대학생이 지원했다. 채용 인원이 3명인 것을 감안하면 경쟁률이 무려 30대 1에 이른다. 지원이 몰린 이유는 시원한 곳에서 단순 심부름을 하면서도 월 125만원의 '거금'을 손에 쥌 수 있기 때문이다.

#2 북구 운암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39)씨는 최근 알바생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3년전만 해도 방학이면 모집 광고를 내지 않아도 알바생 뽑지 않느라 찾아오는 대학생들이 많아 귀찮을 지경이었지만 지금은 형편이 정 반대가 됐다.

순수한 일만 찾는 대학생들이 늘면서 아르바이트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노동 강도가 높거나 작업 환경이 나쁜 일자리는 기피하는 반면 시원하고 깨끗한 곳에서 작업할

수 있는 일이나 단순 사무보조 등 편한 알바는 선호도가 아주 높다. 이제 노동관에서 일하는 대학생은 찾을 수도 없다.

예전의 경우는 비교적 힘들어도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음식점, 주차도우미 등은 방학만 되면 알바를 찾는 대학생들로 넘쳐났다.

또 일은 힘들지만 높은 보수가 보장되는 단기간 생산직도 인기 있는 알바였다. 사정이 딱한 학생들 때문에 애초 계획보다 한 두명 정도 더 많이 뽑는 업주들도 많았다.

특히 요즘에는 보수가 많아도 힘든 직종은 알바 구하기가 어렵다. 힘을 쓰거나 더운 환경에서 버텨야 하는 일도 보수와 관계없이 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손님들과의 잦은 마찰이 불가피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직종도 거절이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 B치킨집은 최근 일주일 동안 배달 학생 모집 광고를 냈지만 방문은 커녕 연락조차 한 건도 없다. 할 수 없이 부부가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배달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나 이주여성들이 자리를 대신하기도 한다.

반면 학원강사, 사무실 업무보조 등 사무실 알바는 공고만 내면 지원자들이 몰려 수시간 만에 마감되고 있다.

한편 아르바이트 채용 정보 사이트인 알바몬이 최근 대학생이 9만2648건의 희망 구직란을 분석한 결과, '학원·교육' 업종이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생산·노무' 업종은 22.1%에 불과했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 A패밀리레스토랑 지배인은 "알바 10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자 20일 동안 매일 30여명의 학생들이 면접을 보러 온다"면서 "근무 여건이 좋고 시급이 5500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아 항상 알바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생활체육 어르신 축제 '제7회 광주시장기 생활체육 어르신 축제'가 5일 광주시 서구 영주체육관에서 열렸다. 5000여명의 어르신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광산구가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북구는 입상상을 받았다. 5개구 생활체육회와 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가 주관하고 광주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고2 6월 2014학년도 모의수능

영어 B형에 응시자 대거 몰려

상위권 대학 선호 영향

지난달 고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전국 연합학력평가의 영어 과목에서 어려운 시험인 B형에 응시자가 집중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12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채점결과'에 따르면 6월 7일 시행된 이번 평가에는 전국 1965개교의 55만 2829명이 응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5월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전·충남 지역의 고2학생 3만912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모의수능과는 달리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돼 2014 수능의 영역별 지원경향과 적정 난이도 조정 가능성을 가늠할 첫 기회였다.

영역별 A·B형 응시 비율은 국어와 수학은 쉬운 A형이 각각 51.7%,

61.8%로 B형보다 많았다. 이에 비해 영어는 B형 응시자가 77.6%로 영어 A형 응시자(21.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영어 B형에 이처럼 응시자가 몰린 것은 주요 상위권 대학이 인문·자연계 모두 B형을 지정해 중위권 이상 학생들이 대거 응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어와 수학은 동시에 B형에 응시할 수 없어 중위권 이상 수험생들은 인문계의 경우 국어 B형, 수학 A형을 선택하고 자연계는 국어 A형, 수학 B형을 선택하는 양상이 뚜렷했다.

영어 과목은 A형과 B형의 점수 차이도 극심했다. 1등급 구분 원점수가 A형 65점(표준점수 143점), B형 96점(표준점수 134점)으로 30점 이상 차이가 났다. 영어 A형 만점의 표준점수는 188점보다 영어 B형 만점의 표준점수 137점보다 51점이나 높았다.

/연합뉴스

조선대 총장 선거 8월 23일

16~20일 후보 등록

조선대학교가 오는 8월23일 제15대 총장 선거를 치른다.

5일 조선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아 8월 23일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서류심사 격인 총장 자격심사위의 심사 후 교직원·학생·동창회 등의 직접선거를 거쳐 1, 2위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 중 1명을 총장으로 최종 임명한다. 지난 선거는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간접 선거인단에서 컷오프를 통해 3명으로 압축한 뒤 이르면 본선을 치렀다.

출마 예상 후보(가나다순)는 강동완(58·차대 보철과), 김하림(56·외대 중국어문화), 박용현(57·법대 글로벌법학과), 서재홍(63·외대 병리학), 임동윤(59·외대 약리학), 조병욱(64·공대 화학공학)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후보 난립 등을 막기 위해 등록후보는 발전기금 3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농어촌 '미니학교' 자율 통폐합

교과부, 학생수 등 기준 삭제 일부 수정안 마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남지역 농어촌 '미니 학교'의 통·폐합을 유도(본보 5월24일자 7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에서 크게 후퇴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5월17일 공고했던 개정령안에 대해 전남도, 도교육청 등이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무더기 폐교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하자, 최

근 수정안을 마련했다.

교과부는 수정안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학교 통폐합 기준(학교급별 학급수와 학생수)을 삭제했다. 대신, 시·도교육감이 학교급·학급수·학생수를 정할 때 재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적절한 수업시수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부가 학교를 강제 통·폐합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4분 해질 19시 50분 달돋이 21시 28분 달질 07시 56분

내일부터 더위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나 밤에 그치겠다.

도시	기온
광주	흐리고비 23/27℃
목포	흐리고비 23/25℃
여수	흐리고비 23/25℃
나주	흐리고비 23/27℃
완도	흐리고비 24/26℃
구례	흐리고비 23/27℃
강진	흐리고비 23/26℃
해남	흐리고비 24/26℃
장흥	흐리고비 23/27℃
순천	흐리고비 22/27℃
영광	흐리고비 23/26℃
진도	흐리고비 23/26℃
군산	흐리고비 23/25℃
남원	흐리고비 23/26℃
홍산	흐리고비 22/24℃

〈오전〉 바다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경고	보통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오후〉 바다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목포 04:02	09:11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16:04	21:13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여수 10:45	04:42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1.5m	23:18	16:41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22/30	21/30	21/30	22/29	23/28	24/28

오늘까지 장맛비

주말부터 다시 폭염

5일 광주에 50.5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은 6일까지 장마권의 영향권에 들겠다. 비가 그친 뒤 주말과 휴일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6일 광주·전남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나 밤

에 그치겠다. 강수량은 곳에 따라 10~50mm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비가 그치고 7일부터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26~28도 분포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8일 광주 등 일부 내륙지역에서는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여수에서는 이번 주말 가끔 구름이 많으며, 기온은 26~27도 분포를 보이겠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폭염 사망자 첫 발생

발일 하던 70대 여성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올 들어 처음으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지난 4일 오후 6시께 집 근처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여성의 사인은 폭염 등으로 인한 심인성 사망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폭염

특보 등 기상 예보에 관심을 갖고 실외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폭염이 집중되는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의 되도록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실외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덧붙였다.

또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투석 등)는 폭염에 더욱 취약한 만큼 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면 1339나 119로 연락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대산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발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기타운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

실내골프연습장 SKY 골프 Club 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새벽반(6:00) 환영

- 드라이빙레인지 모드
- 스윙분석
- 훈련모드(퍼팅, 어프로치 연습)
- PAR3 게임모드
- 스트로크 게임모드

연습장 이용시간

평일	06:00 ~ 23:00
토요일	10:00 ~ 22:00
일요일·공휴일	12:00 ~ 20:00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쉽니다.

SKY 골프 Club 연습장 Tel. 372-3900 H·P. 010-3635-3784
서구 치평동 1187-2 월계수타운 지하1층